

글로벌 금융사가 만족하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영상보안 시스템 완성



“금융사들은 입주계약 시 매우 까다로운 보안조건을 토대로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화테크윈과 함께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보안시스템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영상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서울파이낸스센터 보안관제팀 팀장 유균식

Challenge

서울파이낸스센터(Seoul Finance Center, SFC)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오피스빌딩이다. 2001년에 완공된 해당 건물은 총 38층 규모(지하8층, 지상30층)로 지하 SFC몰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상점, 지상에는 주한싱가포르 대사관, 금융사 및 기업이 입주해 보안시스템에 엄격한 기준과 심사가 요구된다. 서울파이낸스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내방객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기존 노후화된 저화소 카메라를 제거하고 최신 기술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도입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결정했다.

Solution

먼저, 기존 41만 저화소 카메라를 제거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저화소 카메라는 사물인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화테크윈 고해상도 카메라 약 260여대가 지하부터 지상, 실내·외 곳곳에 설치되었다. 특히, 5메가픽셀 피쉬아이카메라(XNF-8010R)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360° 전방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작고 납작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디자인으로 미관상 사용자의 만족감이 컸다. 이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출입구, 복도, 사방이 트인 중앙 계단 주변에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1층 로비에는 4채널 멀티디렉셔널카메라(PNM-9080VQ)를 설치했다. 카메라 한대로 여러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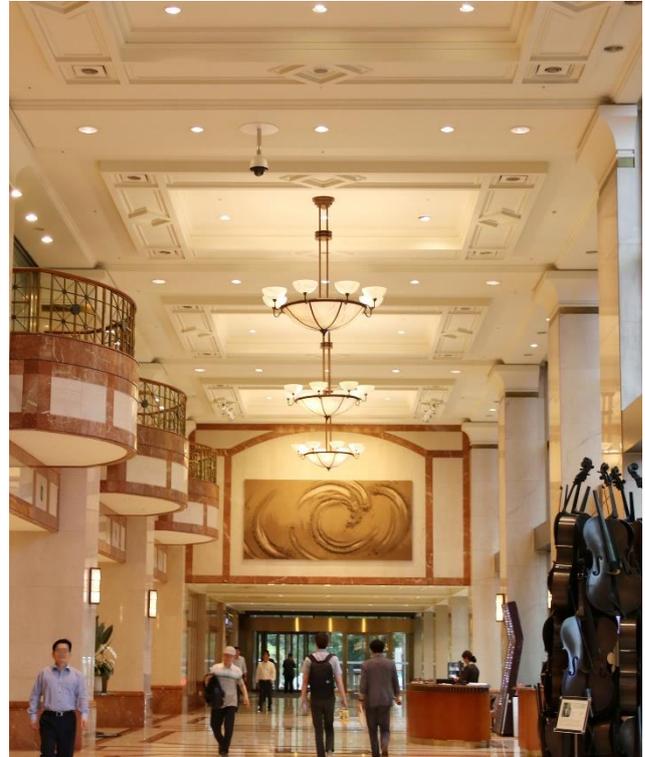
설치 및 유지보수에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2메가 픽셀까지 지원하는 해당 카메라, 4개의 렌즈가 각각 좌우 출입문, 안내데스크, 보안게이트를 모니터링 하게 했다. 회전문이 있는 주출입구 상단에는 팬·틸트·줌이 가능한 PTZ 카메라(XNP-6040H)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해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 차량 확인은 물론, VIP 의전 시 동선파악과 실시간 건물 외부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카메라로부터 전송 받은 영상은 한화테크윈 통합관리소프트웨어 SSM(Smart Security Manager)을 통해 통합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 빈틈없는 보안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빌딩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Result

서울파이낸스센터의 보안관제팀 유균식팀장은 “금융사가 주입주 고객인 만큼 보안, 화재,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입주계약 시 매우 까다로운 보안조건을 토대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 한 후에야 입주를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한화테크윈과 함께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보안시스템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영상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금융사들은 입주계약 시 매우 까다로운 보안조건을 토대로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화테크윈과 함께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보안시스템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영상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서울파이낸스센터 보안관제팀 팀장 유균식



통합관제실의 SSM(Smart Security Manager)

서울파이낸스센터는 로비와 승강기 내부에 약 60여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 설치 완료 후, 약 300여대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정보는 통합관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한화테크윈 SSM이 보유한 다양한 지능형 영상분석, 스마트검색, 이벤트관리 기능으로 영상 관리 효율이 높아졌고 신속, 정확한 이벤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해당 관제실은 현재 총 256개 채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부 행사 모니터링

층고가 높은 로비 중앙에는 팬-틸트-줌이 가능한 PTZ카메라(SNP-6321H)를 추가로 설치해 로비 내부는 물론 글라스월(Glass Wall)넘어 건물 외부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공연, 촬영, 집회 등 외부 행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 입주민과 내방객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